대만서 7.0↑ 25년만 최대 규모 강진…인명·재산피해 속출

약 150㎞ 떨어진 타이베이서도 "집 곧 무너질듯"
대만은 물론 日·필리핀에 쓰나미 경보 발령됐다 해제

3일 오전 대만 동부에서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강진으로 이날 오후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쳤으며 건물 20여채가 무너지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지진 영향으로 대만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해안 지역에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으나 큰 피해 없이 해제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전 7시58분(현지시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명의 관광도시 화롄(花蓮)에서 남동쪽으로 12㎞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20㎞로 관측됐다.

이로부터 10여분 뒤에는 규모 6.5의 여진이 이어졌다. 여진은 총 25차례를 넘었다.

일본 기상 당국은 규모를 당초 7.5에서 7.7로 상향했고 중국은 7.3으로 관측했다.

대만 당국은 규모가 7.2라면서 이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약 2천400명이 숨지고 건물 5만채가 파손된 1999년 9월21일 발생한 지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우젠푸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진앙이 육지와 상당히 가까운 얕은 층이어서 대만 전 지역에서 지진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우 센터장은 앞으로 3-4일간 규모 6.5-7.0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자리 잡고 있어 지진이 잦다.

1901년부터 2000년 사이 사망자를 초래한 대형 지진은 48차례나 있었다.

지진 여파로 대만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가 1m 높이의 '주의보'로 낮춰진 뒤 나중에는 이마저도 해제됐다.

규모 7.4 강진에 기울어진 건물. /AP=연합뉴스

필리핀 당국도 높은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는 중국도 화롄 등 해안지역에 대해 4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약 3시간 뒤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쓰나미 위협이 대체로 지나갔다고 알렸고 이후 일본과 필리핀도 주의보를 잇달아 해제했다.

로이터는 이번 강진으로 인해 150㎞ 안팎 떨어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8만7천여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전했다.

대만 소방당국은 지진으로 진앙과 가까운 화롄 지역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롄 지역은 1천㎢의 면적에 육박하는 타이루거 협곡과 해발 최대 800m의 칭수이 절벽이 위치하는 등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하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주차된 오토바이들이 무너진 건물에 깔린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방이 크게 흔들리고 물건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연합뉴스

네타냐후는 반역자…계속되는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

내각 총 사퇴·조기 총선 촉구
국내외서 사면초가 위기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질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가 가자지구 구호트럭 오폭 참사까지 벌어지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외에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의회 건물 앞에는 시위대 수천명이 모여 네타냐후 내각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주말부터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시위는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가족들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정비를 규탄해 온 반정부 시위대의 주도로 열렸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시위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인 10만여명이 모여 네타냐후 정부의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에후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도 참여해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용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가 내각 총 사퇴와 즉각적인 조기 총선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직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130여명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전쟁을 이용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들이 인질로 잡혀간 에이나브 자나우케르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가족들을 전쟁 중에 시위를 벌이는 '반역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자는 네타냐후 당신"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네타냐후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지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전 계획을 두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시위대 중 3천여명은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의회에서 네타냐후 총리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연합뉴스

튀르키예 이스탄불, 클럽 화재 29명 사망

2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유흥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당국 발표와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이스탄불 베식타쉬 가에레테페 지역의 한 16층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클럽이 있는 지하 1·2층으로 옮겨붙었다.

당국은 소방차 31대와 소방대원 86명을 투입해 곧 화재를 진압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10여명이 잇따라 숨지며 사망자 수가 커졌다.

당국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며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고 설명했다.

폭발 등 테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정보는 우리에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장 영상과 사진을 보면 옆 빌딩에 인접한 좁은 출입구가 연기로 검게 그을린 모습이 담겼다.

지하 클럽은 40년 가까이 영업해온 업소다. /연합뉴스

美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억만장자 합류

인기 정상의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4)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집계한 억만장자대열에 합류했다.

스위프트는 포브스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새 억만장자들'(New Billionaires 2024) 명단에 다른 유명인들과 함께 포함됐다.

포브스는 올해 억만장자 대열에 새로 합류한 부호 중 스위프트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위프트가 블록버스터급 콘서트 수익과 음반·음원 판매 수입, 부동산 투자 등으로 총 11억달러(1조4천878억원)로 추정되는 재산을 모았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스위프트가 오로지 노래와 공연만으로 10억달러가 넘는 부를 축적한 최초의 음악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 세계 5개 대륙을 순회하는 '에라스 투어'(Eras Tour) 공연으로 한 해 동안에만 10억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리는 등 역대 공연 수입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으로 꼽히는 '올해의 앨범'을 네 번째로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쓰기도 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